

천운영, 야생의 여성성을 찾아서

글_이광호 문학평론가



젊은 작가 천운영은 2000년대 문학공간에서 자신의 문학적 스타일을 새롭게 발견한 몇 안 되는 작가 중의 하나이다. 첫 창작집 「바늘」(2001)에서 천운영은 한국 여성 소설에서는 볼 수 없었던 독특한 야생의 미학을 선보였다. 천운영의 여성 인물들은 남성적

인 시선에 의해 획일화된 상투적인 여성 캐릭터와 이미 지로부터 비껴서 있다. 그의 소설들은 제도화된 여성성과 거세된 남성적 문화를 돌파하는 관능과 일탈의 은유들로 들끓는다. 그것은 제도 탄생 이전의 원초적인 여성적인 에너지를 불러낸다. 야생적인 여성성은 사회적인 타자인 여성들 내부의 억압된 자질들을 개방하는 공격적인 힘을 포함한다. 그것은 지배적인 상징질서의 영역의 바깥으로 질주하는 본능적인 여성적 에너지를 드러낸다. 거기에는 식물적인 여성성으로부터 동물적인 여성성으로의, 혹은 타자로서의 여성성으로부터 창조적인 부재와 이질적인 복수항(複數項)으로서의 여성성으로 탈주하는 문학적 전환이 일어난다. 한국의 여성 소설의 목록에 제

출되는 이 낯선 미학은 규범적인 여성성을 넘어서는 문화적인 의미를 포함한다.

그녀가 말하는 여성, 불구이거나 난폭하거나

〈바늘〉에는 문신을 하는 ‘나’-여자가 등장한다. ‘나’에게 문신을 부탁하는 남성들은 “나에게서 협각류의 단단한 외피를 얻으려 한다”. 협각류의 외피는 외부 세계의 위협으로부터 자기를 방어하는 힘을 갖게 되는 변신의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그들은 거미나 전갈 따위의 문신을 원한다. 다른 존재로의 전이를 갈망하는 변신의 욕망은 일종의 성적 에너지를 포함한다. 그런데 우연히 ‘나’는 남성성이 결핍된 한 남자를 만나게 되고, 그 남자는 강력한 무기를 자기 몸에 새겨주기를 바란다. 그러나 ‘나’는 그의 가슴에 새끼손가락만한 바늘 하나를 그려준다. 이때 바늘은 어떤 변신도 가능하게 하는 미지의 강력한 힘이다. 그 미지의 힘에 서술자는 여성 성기의 이미지를 새겨넣는다. 우주를 빨아들이는 틱새로서의 ‘바늘-여성 성기’는 어떤 무기보다 강하다. ‘바늘-여성 성기-틈새’는 변신에 관한 모든 가능성을 품고 있다. 바늘이 어떤 변신도 실현할 수 있다면, 여성의 틱새야말로 어떤 존재로 태어나게 하는 창조적 부재의 자리이다. 그곳은 우

주를 흡수하고, 우주를 거둬나가는 틈새이다.

〈숨〉에는 소골을 손질해서 파는 늙은 여자와 그의 손자가 등장한다. 서술자는 그 노파에게 ‘늙은 마녀’와 늙은 육식동물의 이미지를 겹쳐놓는다. 그녀에게 ‘나’는 사육되는 작은 짐승에 불과하다. 그 늙은 육식동물은 “어미 뱃속에 들어 있는 송아지”를 말하는 ‘송치’를 구해 오라고 요구한다. 송치의 요구는 그녀의 폭력적인 육식성의 한 극단적 대상이다. ‘내’가 사랑하는 여자 ‘미연’은 ‘초식동물’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 ‘나’는 육식의 여성성과 초식의 여성성 사이에 처해 있는 힘없는 짐승이다. 소설의 공간은 하나의 밀림이다. 소머리에 물을 먹이다 경찰에 적발되어 도망가는 ‘나’에게 그곳은 하나의 밀림이다. 여기서 ‘미연’의 ‘숨’은 할머니의 폭력적 육식성과 비교되는 생명력의 자리이다. 그런데 ‘숨’은 단지 동물성에 대결하는 식물성의 영역이 아니다. 여기서 ‘숨’은 ‘동물성/식물성’의 평면적인 대립을 넘어서는 생명 일반의 운동이다.

이와 같이 천운영 소설 속의 여성 이미지는 우선 그 외형적인 모습에서 구별된다. 그의 소설에는 예쁜 여자가 나오지 않는다. 소설 속의 그녀들은 추한 모습을 하고 있거나, 불구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 “툭 튀어나온 광대뼈와 곱추를 연상케 할 정도로 둥그렇게 붙은 목과 등의 살덩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목소리, 뭉뚱한 발가락...”(〈바늘〉), “내 몸에서 자라는 것은 머리통뿐이다. 이 순간에도 쑥쑥 크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커다란 머리통은 곱추의 등허리처럼 부당스럽고 거치적거리기만 한다”(〈월경〉), “몸을 돌리다가 둥그렇게 솟은 어깨와 등의 굴곡을 보고 만다. 등을 잠시 잊고 있었다. 내 등은 수수께끼다. 사막의 비밀을 간직한 낙타의 등”(〈포옹〉). 1990년대 소설에서 발견되던 도시적 매력을 가진 전문직 여성은 그의 소설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그 불구성과 비정상성은 그녀들이 처한 삶의 지독한 소외, 그 삶의 끔찍한



주변성을 조건짓고 동시에 상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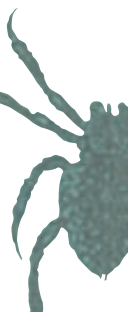
심지어 그녀들은 난폭하기까지 하다. 그녀들은 일반적인 의미의 여성 성과는 정반대의 동물적인 공격성을 보여준다. 직접적인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인물도 있다. 남편에게 주기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아내의 식욕. “나를 때린 뒤 아내의 식욕은 무서울 정도로 왕성해진다. 소진된 몸을 보강시키기라도 하려는 듯 아내는 막무가내로 먹어댄다”(〈행복 고물상〉). 서술자는 그녀에게 야생동

물의 이미지를 입힌다. “아내는 야생의 초원을 가졌다. 아내의 몸 속에는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맹수와 성난 발길질을 하는 암말과 살진 들소가 산다. 맹수의 시체를 향해 덤벼드는 검은머리독수리와 독수리에 쫓기는 연약한 새도 있다”(〈행복 고물상〉). 폭력과 식욕 그리고 성적 욕구는 천운영의 소설에서 여성 인물들의 행위의 기본적인 동기들로 서로 매개되어 있다. 그 행위들의 난폭함은 내적 억압의 분출이라고 볼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그녀들의 폭력성이 잘 드러나는 곳이 그들의 독특한 식성이라는 점이다. 그녀들은 대부분 육식을 즐긴다. “할머니는 모든 병을 육식으로 치료한다”(〈숨〉), “나는 양념하지 않은 고기를 먹는다. 손가락 두께로 썰어서 피가 살짝 날 정도로 구운 쇠고기나 마늘과 양파를 많이 넣고 삶은 돼지고기를 좋아한다”(〈바늘〉), “여자가 뼈에 붙은 살을 좋아한다는 것은 다른 음식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닭튀김을 먹을 때 여자는 다리나 날개 가슴살은 거들떠보지 않고 먹기 힘든 부분만을 먹었다. 다리 마디에 붙어 있는 살이나 닭 갈비뼈 따위들”(〈등뼈〉). 육식에 대한 집착은 그녀들이 가진 세계에 대한 공격성과 적의를 암시한다.

여성성의 문학적 의미를 갱신하다

천운영 소설 속의 여성들이 처한 억압과 소외는 거의 태생적인 것에 가깝다. 그 억압과 소외가 함유하는 사회



적·문화적 동기와 맥락은 소설의 표면에서는 희미하게 나타난다. 천운영의 소설에서 그녀들이 견뎌내야 할 불우는 가족 단위의 어두운 운명론에 기대고 있다. 이 젊은 작가는 그 오래된 운명론에 독특한 미학적 자질들을 새겨넣는다.

첫 창작집을 상재한 이후 작가는 자신의 소설미학을 좀더 다채로운 삶의 공간으로 확장하려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그 연장에서 쓰여진 <늑대가 왔다> <명랑> <명계 뒷맛> <모퉁이> <아버지의 엉덩이> 등은 작가의 소설 작업의 현주소와 미래를 예감할 수 있게 한다.

<명랑>에서는 <숨>에서와 같이 노인의 캐릭터가 등장하지만, 그 이미지는 전혀 다르다. 여자 삼대만 살아가는 누추한 생활 공간에서, '명랑'은 할머니가 먹는 진통제의 이름이다. 할머니가 강박적이고 상습적으로 남용하는 '명랑'은 늙었으나 어떤 여성성을 간직한 할머니의 몸을 지탱하는 '방부제'와 같은 것이다. 가령 할머니는 작고 아름다운 발을 가졌으며, "단단한 젓가슴 위에 자그마하게 자리잡은 분홍빛 유두는 이제 막 젖멍울이 지기 시작한 소녀의 것과 비슷하다. 그녀의 가슴에는 진화와 소멸이 함께 살고 있다". 거기에 비해 유원지에서 식당을 하는 "남자의 냄새가 나는" 어머니와 담배로 젊은 나이를 탕진하고 있는 손녀의 이미지는 상대적으로 할머니의 여성적 아름다움과 대비된다. 장마로 집이 무너져서 죽은 할머니의 시체서 확인된 그녀의 발은 그러나 "헛독 오른 아버지의 발"과 같다.

<명계 뒷맛>에서 이인칭으로 등장하는 이웃 여자는 지나치게 아름답고 환한 여자이다. 그녀처럼 아름답지 못한 '나'는 '당신'에 대한 열등감과 시기심으로 몸을 떤다. '폐백용 오징어 꽃'을 만드는 '나'에게는 '당신'의 친절과 다정함도 일종의 모욕이며 고통이다. 그런 '당신'이 남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불행한 상황을 알게 된 뒤부터, '당신'의 불행과 고통은 '나'의 위로이자 기쁨이 된다. '당신'의 고통을 즐기는 "남자와 나는 병을 나누어 가진 병자들처럼, 형제처럼, 같은 피가 흐르고 있다". 아름다운 여자에 대한 '나'의 질투심은 '당신'의 남자를 심정

적인 공범으로 생각하게 한다. '당신'은 결국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고 남은 것은 '당신'이 좋아하던 '명계의 뒷맛'이다. "당신은 명계를 먹으면 살고 싶어진다고 했다. 나도 살고 싶다. 그러나 이제 당신 없이는 살 수가 없었다. 나는 당신의 불행 없이는 어떤 활기도 갖지 못했다" "당신이 죽자 당신의 불행도 사라졌고 내 생의 활기도 사라졌다". '명계 뒷맛'의 짜한 냄새와 관능적인 촉감은 '당신-그녀'의 여성성에 관한 하나의 복합적인 상징이다.

<늑대가 왔다>에서 작가는 '늑대가 왔다'라고 외치는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를 소녀의 이야기로 바꾸어놓는다. 소녀가 보는 늑대는 소녀의 소녀성에 관한 독특한 의미 자질을 생성한다. "늑대는 어디든지 나타나. 나는 양치기 소녀. 늑대는 내 눈에 살아. 아무도 내 말을 안 믿어. 늑대는 없다고 하지, 나더러 장님이 되라고 하지." "노래라 기보다는 노인의 길쌈소리나 인디언의 주술 외는 소리" 같은 소녀의 노래는 그녀의 무의식과 그녀가 처한 실존적·사회적 장소를 암시한다. 늑대의 세속적 상징 중의 하나인 남성성-사내들이 들끓는 세계에서 예외적인 타자로서의 소녀의 이미지는 소설의 공간적 배경이 되는 숯가마 마을의 이미지와 겹쳐지면서 선명하고 강렬한 소설적 상징을 형성한다. 소녀의 존재와 내면을 둘러싼 설화와 환상, 그리고 그녀가 처한 숯가마 마을 사내들이 만드는 현실과의 접목은, 소설 공간을 신화적인 공간과 현실적인 공간 양쪽에 관계 맺게 만든다.

최근의 천운영의 소설들은 여성과 여성 사이의 실존적 관계, 혹은 여성의 실존적 연대에 대한 작가적인 관심을 통해 새로운 여성 미학의 전선을 형성해 가고 있다. 한국 문학에 독특한 여성 캐릭터의 이미지를 새겨넣으면서 여성성의 문학적 의미를 갱신한 작가 천운영. 작가는 1990년대 여성 소설의 성취를 꺼안고 상투적인 여성 이미지를 창조적으로 넘어설 수 있는 소설적 가능성을 시험해 왔다. 이런 이유로 독자들은 천운영 소설이 선보인 작가적 개성의 매력을 넘어, 작가의 '미래'의 작업에 더욱 주목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